

## 달콤한 이면에 치명적 毒... 가십의 양면성

### 성난 초콜릿

조지프 엡스타인 지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뒷담화'가 있다.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게 뒷담화다. 자신이 대상만 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짜릿한 쾌감을 주는 게 없다.

어느 조직이든 그 이면에는 가십이 상존한다. 그 가십을 지렛대로 누군가는 상승의 욕망을 꿈꾸고 누군가는 추락의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는 반증이다.

가십은 여자들의 수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권력 차원의 가십은 폭로의 동의어로 치부된다. 여론을 지배하고 정권을 쥐락펴락한다. 권력자의 앞날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며 미래 권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

가십을 문화·사회사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아메리칸 스칼라' 편집인이자 평론가인 미국의 조지프 엡스타인이 쓴 '성난 초콜릿'은 왜 가십이 매력적인지, 참된 기능은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재미있게 푼다.

가십은 단순한 무머와는 다르다. 다들 어지르지 않은 내용이 무작위로 퍼지는 것과 달리 일련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가십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식'으로 정의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타인이 숨기고 싶은 내밀한 부분을 엿듣고 싶은 욕구가 있다. 치명적일수록 효과가 배가되고 알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긴다.

"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제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직업 이야기나 스포츠, 정치, 의상, 음식, 책, 음악 등 그와 비슷한 일반적인 것들에 관한 잡담이 있을 뿐이다."

가십 가운데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유명인이

나 지인과 관련된 부분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파경, 시택이나 처가와의 갈등, 불륜, 실직이나 파면 이야기는 '초콜릿처럼' 묘한 매혹을 준다.

마블린 먼로가 죽었을 때의 이야기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가 장례를 도맡았다.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다. "두 사람이 부부였을 때 디마지오가 그녀를 자주 때렸대. 아서 밀러(세 번째 남편이었던 극작가)가 한 말이야"라고. 그런데 그 아서 밀러가 세 번째 아내였던 사진가 잉게 모라트에게서 낳은 아들(다온중후군 증세가 있었다)을 숨겼다는 사실도 들려온다.

20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극작가 해럴드 핀터에 관한 가십도 있다. 언젠가 핀터는 짧은 시 한 편을 써 친구들에게 보내고 호평을 기다렸다.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전성기 때의 헨 허튼을 알고 있었네/ 먼 옛날이지, 먼 옛날."

헨 허튼은 영국의 전설적인 크리켓 선수로, 핀터는 그를 소재로 짙막한 시를 쓴 거였다.

핀터 친구들은 대부분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짚었으며 감동적"이라며 상찬을 했다. 그런데 한 친구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핀터가 손수 전화를 넣었다. "시를 받았나?" "물론 받았지." "어떻게 생각해?" 친구는 잠시 침묵을 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실은 아직 다 읽지 못했네."

세계적인 시인도 칭찬에 약했다는 사실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준다. 가십은 듣는 사람의 편에서는 초콜릿일 수밖에 없다. 진화생물학은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생존의 방편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과유불급. 가십에도 해당되는 이치다. 언젠가 당신이 그 가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읽는 책·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 사회에 던지는 거침없는 시선

### '이미 뜨거운 것들'

최영미 지음



'서른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한 최영미 시인이 신작 '이미 뜨거운 것들'을 펴냈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정치문제, 가족사,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노래한다.

시인은 그동안 사람과 사랑에 천착해왔다. '돼지들에게', '도착하지 않는 삶' 등의 시집에서 다뤘던 거침없는 사랑과 자유는 한층 깊어진 느낌이다.

이번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이다. 정치계를 향해 던지는 '돌직구'는 대담하면서도 거침이 없다. "5천만의 국민을 감히 사랑한다고/ 떠드는 자들/ 사랑을 말하며/ 너는 숨도 쉬지 않나?" (정치인) 중)

시인의 직선적 화법은 국내 정치인들에만 향하지 않는다. 북한의 정치 행태도 일갈한다. 북한의 간부를 '교활한 여우'로 상징화하기도 하고 "잘 우는 사람이 출세한다"("맑은 풀" 중)며 닫힌 사회의 부조리한 면을 풍자한다.

이 외에도 시인은 소소한 가족사,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도 의미 있는 시선을 던진다. 일상에서 깊어 물린 삶이 있는 비유와 부드러운 호흡이 전면에 녹아 있어 시집의 승결하는 것- 그 인정 위에서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붙여 멀리서 바라본다. 말과 말 사이, 빈틈없는 것들은 빛나고 아닌 것들은 시들시들 주름을 감출 수 없다. 감추지 않으려나."

〈실천문학사·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은 삶이 있다

###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

김남희·쓰지 신이치 지음



"당신의 삶의 속도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이가 얼마나 될까. 속도에 관련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알려져 있다. 속도가 삶을 강제하는 필수 요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에 '걷기 여행' 붐을 일으킨 여행가 김남희와 슬로라이프 개념을 제안한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쓰지 신이치가 속도와 방향에 관한 책을 펴냈다. '삶의 속도, 행복의 방향'은 느리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지향을 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동아시아의 평화와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한일 공동 NGO행사인 '피스 앤드 그린

보트'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느리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단순히 느리게 사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좋고 실패해도 괜찮은 삶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나를 혹사하는 자기 긍정이 아닌, 내가 지구 위의 다른 모든 생명처럼 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 그 인정 위에서 내가 나 자신과 맺은 관계를, 이웃과 맺은 관계를, 자연과 맺은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김남희씨는 약하고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천천히 살 것을 주문한다. 지금 당장 과속으로 달리는 삶의 속도를 낮추자.

〈문학동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리말에 깃든 '얼'을 만나다

### '우리말의 비밀'

이승현 지음



세계적인 멘탈헬스 권위자이자 뇌교육자인 이지 이승현 국제사이버대학 총장이 '행복의 열쇠가 숨어있는 우리말의 비밀'을 펴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철학을 토대로 명상 프로그램 개발, 강연,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저자는 자신만의 탁월한 통찰과 혜안으로 우리말, 우리 얼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언어학자도 아닌 그가 우리말에 주목한 이유는, 인간 정신의 경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에 숨은 놀랍고도 위대한 우리 정신의 세계를 만

났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정신의 핵인 '얼'을 강조하면서, 우리말은 얼에 뿌리를 내리고 얼의 생명력을 취하며 스스로 얼의 문화를 키웠다고 한다. 우리말의 참뜻과 내재한 힘을 깨우치면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건강, 행복,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얼을 되찾지 않으면 고서는 일찍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볼 줄도 아무리 씨름해야 할만 소진할 뿐 해결책을 찾을 도리가 없다고 전한다. 〈한문화·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다른 취향이 폭력으로까지

### '취향입니다...'

이수진 지음



취향에 관한 전면적인 질문을 던진 장편소설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광주 출신 작가 이수진은 이 소설로 제4회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취향의 차이로 인해 여자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차인 주인공 한이 '클럽 안티 버틀러'의 일원이 되면서 인류 취향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한 온갖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다.

'버틀러'는 집사라는 뜻으로 고향 이를 주인공으로 모시고 스스로를 집사

로 낮춰 부르는 애묘인을 뜻한다. 이들은 자신의 취향을 특별하게 여기며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소외시키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저자는 고양이에 관한 각종 트라우마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취향'이란 그림 듯한 이를 아래 누구나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취향 때문에 무시당했던 이 시대의 내밀한 상처들을 모조리 드러내 보이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 자연과 인간, 조화와 갈등의 풍경

### '인류의 발자국'

앤터니 페나 지음



"지구의 생애와 인류의 역사는 복잡하고 의미심장하게 서로 엮여 있다. 지구상에서 호모 사피엔스만큼 자연계에 종대한 영향을 미친 종은 없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지질과 기후,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잉태하기도 했다."

"인류의 발자국-지구 환경과 문명의 역사"는 지구의 탄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남긴 '인류의 발자국'을 탐사한 책이다. 지인이 앤터니 페나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 명예교수는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에 적응하며 문명을 일궈왔다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바라보고 있다. 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연 세계와 인류 역사의 상호 의존성을 느낄 수 있다.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책은 인류의 생명을 비롯해 모든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지구의 진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교 방법론으로 인류의 과거를 탐사하면서 지질학과 기후학, 인류학, 고고학, 진화생물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최신 연구를 종합하는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남긴 선명한 생태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구와 생명체는 더불어 진화한다"는 진리를 세심하게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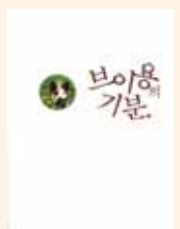
〈삼천리·2만6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 신간

▲**브이용의 기본**=반려견 브이용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부의 일상을 따뜻한 사진과 짧은 글로 담아낸 '브이용의 기본'. 일상 곳곳에서 마주치는 인생의 의미를 함축적인 글과 위트 있는 그림, 감성적인 사진으로 자유롭게 담아낸 '양도독', 유명 카피라이터 이토이 시게사토가 포토에세이집 2권을 동시에 출간했다. 양도독은 바쁜 일상에서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찾는 이들에게 매일을 다르게 보는 법을 알려준다. 〈월북·각 권 1만2800원〉

▲**나노베이션**=2000달리짜리 세상에서 가장 싼 승용차 타타 나노가 이뤄낸 거대한 기적. 타타 나노와 세상을 바꾼 이노베이션을 혼합한 나노베이션(nanovation)은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성공한 기업의 이야기다. 타타 나노의 제작과정과 혁신,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청사진이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기업이 옳은 가치관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했을 때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준다. 〈세종서적·2만4000원〉

▲**기억력도 스펙이다**=기억력도 스펙인 시대다. 학생들은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직장인은 보다 빨리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기억력이 필수다. 책은 KBS '과학카페' '기억고수들의 세 가지 습관'편에 소개된 기억력과 연관된 뇌과학 정보와 새로운 기억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비전코리아·1만3500원〉



▲**고경원의 길고양이 통신**=길고양이의 동행자 고경원의 네번째 책 '길고양이 통신'이 출간됐다. 2002년 종로의 한 화단에서 만난 삼색 고양이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2013년 지금까지, 전국의 길고양이들과 함께 한 10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책에는 길고양이들의 흥미로운 습성이나 회로애라 가득한 삶이 한 편의 다큐처럼 펼쳐진다. 〈엘리스·1만5000원〉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미국 영화감독 세대의 대표주자인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두 번째 아내였던 줄리아 카메론이 글쓰기의 의미와 행복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버무린 에피소드로 풀어낸 책이다. 카메론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문장을 잘 쓰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누구나 글을 쓸 권리가 있으며 작가를 잘 쓸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개나 쥐버리라고' 외친다. 〈이디미디어·1만5000원〉

▲**세계추리소설 결작선 1, 2**=한국추리작가 협회가 엄선한 세계 미스터리 결작. 에드거 앨런 포의 '마리 로제 수수께끼'를 비롯해 자크 푸트렐의 밀실 수작인 '13호 감방의 비밀', 손다이크 박사로 유명한 오스틴 프리먼의 '문자조합 자물쇠' 등 미스터리 역사상 결작의 반열에 오른 작품들을 수록했다. 작품 사이사이에 추리소설 역사에 대한 안내 역할을 맡을 평론들을 배치해 놓은 점이 독특하다. 〈한스미디어·각 권 1만5800원〉



▲**내 몸속에 전장이 일어난 이유**= "우르릉 우르릉 쿵쿵! 데미 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몸의 이상을 느낀 데미는 왕진 온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몸 속에서 전장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몸 속을 더듬는 적군, 그에 맞서는 파란 병사와 코끼리 부대까지. 의사 선생님은 데미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뜨인돌어린이·1만1000원〉

▲**무민과 아빠의 첫 운전**=무민 아빠가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동화. 주인공은 자동차를 본 무민 아빠는 얼떨결에 시동을 걸어본다. 방향을 제대로 틀지 못해 빙글빙글 돌고 멈추는 방법도 몰라 큰 일이 날 뻔하기도 한다. 작가는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일단 용기 내어 시작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려 준다. 〈어린이작가정신·9000원〉

▲**고슴도치의 알**=오리 아줌마로부터 자연스럽게 모성애를 배우는 아기 고슴도치 이야기



다. 아기 고슴도치가 알을 품고 있는 오리 아줌마를 만났다. 오리 아줌마를 따라 자신을 꼭 닮은 밤송이를 품게 된 아기 고슴도치는 알밭에서 나온 애벌레를 자기 아가리서 자랑한다. 아기 고슴도치는 오리 아줌마가 사랑으로 알을 품고 있으며 그 알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다. 〈북극곰·1만5000원〉

▲**섬소년**=바다에 의지해 고기 잡고 조개 주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용태네 섬사람들. 하지만 육지에서 불어온 거대한 파도에 하나둘 섬을 떠난다. 예전 소박하고 인정 넘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소년은 섬에 사람들이 돌아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란다. 〈해와나무·8800원〉

▲**세계의 옛이야기**=한겨레 옛이야기 시리즈 35권을 출간한 한겨레어린이들이 세계의 옛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한다. '새록새록 웃긴 이야기' '가지가지 마음 이야기'를 먼저 선보이는 이번 시리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옛이야기를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주제별로 엮은 것이 특징이다. 〈한겨레어린이들·각 권 1만원〉

## 어린이 책꽂이